문화재관람료 징수, 불교 안팎 온도차 크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 발단
비판여론 확산… 현행제도 한계 지적 목소리 높아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람료 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불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 · 불교계의 장기적인 대안 모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주사와 충북도, 보은군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주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징수해 온 관람료를 포기하는 대신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내 수용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징수체계로 그동안 국립공원 등산로 등이 사찰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 사찰이 받는 통행세로 오해를 받아 왔다.

2007년까지 국립공원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정부로부터 국립공원입장료 중 일부를 문화재 보존에 관한 내역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개별징수하게 됐다. 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10여년간 갈등이 반복된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25곳이다. 도립 · 군립공원까지 확대하면 46개로 늘어난다.

불교계는 그동안 문화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30%를 총무원과 사찰 공동명의로 예치해 총괄적인 문화재 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유사찰이 13~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스님, 신도 등 기본 사찰 업무상 출입자나 공무수행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수방식과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종단 사찰문화재관리보존법에 관람료 인상 등을 위원회에서 총무원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개별 징수액이나 집행은 사실상 소속 사찰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찰의 징수방식을 두고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지리산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된 천은사, 구례 화엄사, 속초 신흥사 등이 갈등 발생 사찰이다.

구례 지리산에 위치한 천은사는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지리산

사찰 · 탐방객 갈등 격화
사찰 자율 징수, 종단 규정 미비
국가, 문화재 관리 방임 지적도

성삼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가 사찰을 관통한다.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가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천은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명칭을 바꿔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악산에서도 매년 단풍철이 되면 설악동 주민들과 사찰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신흥사는 2009년 속초시와 협약을 통해 속초시민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8월 31일 주민들과 설악권번영회 등 상인들은 신흥사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사찰 측에 제출했다.

이 같은 갈등에 제도 전면개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공공재인 문화재 관리와 보존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문화재 관리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문화재 관람료'란 준조세 형식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소장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불교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불교계는 징수의 당위성에만 집중해왔다. 관람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도 "불교계는 국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을 내도록 하는데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종단 내부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용어 등을 고민하고 규정 등을 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독립 만해를 '통일 만해'로… 님은 갔지만 후손들은 님을 보내지 않았다. 민족독립투사이자 뛰어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만해사상실천연합의 한국통일문학축전이 8월 28~29일 심우장 일대서 개최됐다. 사진은 29일 열린 기념식서 불교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한 내빈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있는 모습. 문학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한 만해사상실천연합은 현 시대 만해 스님의 화두를 '남북통일'로 정하고, 만해사상 선양에 힘쓰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로컬푸드 모범 완주서 GMO개발이라니"

종교환경연대, 8월 25~27일 '탈GMO' 생명평화순례 실시

전북 완주 농업진흥청이 벼를 비롯한 GMO(유전자변형식품)를 노지 재배하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5대종교 환경단체가 GMO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종교환경연대(불교환경연대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원불교환경연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천도교한울연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는 8월 25~27일 완주 농업진흥청 일대서 '생명을 위한 선택, 탈GMO'를 주제로 생명평화순례를 실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 전 세계서 유래 없이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 GMO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동의 및 설명회 없이 추진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종교환경연대는 '생명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인데, 우리는 과학과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파괴해 욕망을 채워왔다"며 "그 결과 인류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순례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최원영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종교환경회의 의장 양재성 목사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아동학대 · 여성폭력 근절 "불교계 앞장서자"

조계종복지재단 · 여성개발원, 관련 세미나 연일 개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가 연일 보도되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및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교적 관점과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여성 · 아동 폭력의 현주소와 해법'을 주제로 1차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범석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허난영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은 각각 아동학대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관련 시설 수탁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 관장은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190여개 시설, 불교계 전체 1000여개 시설이 있으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불교의 자비 · 생명존중 · 아동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대한 수탁에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교계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가 전부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허 센터장은 "전국에 수많은 아동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타종교서 위탁운영 하고 있다. 불교계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여성복지시설 수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며 "우선적으로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

여성시설 수탁, 교육체계화 요청
아동 행복교육 연구 제안도 나와

매 상담교육원 각 100시간 이수자를 전제로 한 상담원 양성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우리 아이들, 과연 행복한가?: 불교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0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서 백경임 교수는 경전에 명시된 자녀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기에 집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에서 인과의 이치, 잘못을 꾸짖을 때 화내지 않는 일, 사섭법과 사회윤리 등을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다. 따라서 가족은 수행공동체이고, 부모나 자녀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고 말했다.

김일환 동화작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으로 △명상교육 △동화교육 △공동체교육 △행복교육을 꼽았다. 그는 "부모의 탐진치를 자녀에게 투영해 아이들을 스트레스에 묶어둔다면 행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어른들부터 작은 행복감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수경 강사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인식과 사회시스템을 불교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적인 인성교육이 된다"며 "자타불이, 생명존중, 불성함양 등이 불교 인성교육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세계를 품은 백제 문화를 기리다

제62회 백제문화제 9월 24일~10월 2일 개최

제62회 백제문화제가 9월 23일 전야제와 24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야제인 23일 오후 8시부터는 구드래 금강 둔치에서 한화가 후원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불꽃쇼'가 열린다.

24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정림사지 주 무대에서 '백제!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열린다. 백제혼불 합화식과 점화식, 주제공연과 이날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등장하는 '귀문의 부활'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정림사지 박물관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정림사지 옆 소나무길 300m에 조성되는 '백제 테마로드 전시관'도 이번 백제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이곳에는 왕실관과 사비천도 영상관 백제복식과 유물이 전시되고 삼충제, 수륙재, 궁녀제 등 백제문화제의 발자취를 기록한 전시관도 운영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